

함께 놀고, 함께 만드는 아이들의 행복 공동체



함박종합사회복지관에서 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

인천시 연수구 연수1동 함박마을은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작은 고려인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인근 초등학교에 가면 5명 중 1명은 고려인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언어 문제, 문화적인 문제로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함박종합사회복지관의 서지혜 사회복지사는 지역의 사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아이들과 마을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함박종합사회복지관은 오랜 고민 끝에 그 해법으로 ‘놀이’를 떠올렸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복지관에서 마련해주자는 마음으로 준비한 프로그램이 바로 ‘MVP 기획단’ 사업이다. Motive, Village, Play 세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이름 붙인 이 프로그램은 마을의 아이들이 함께 놀면서 새로운 꿈을 향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자는 뜻을 담고 있다.

이러한 도전은 2019년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소외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협력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더욱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 고려인 가정과 한국인 가정이 함께 참여해 놀이와 지역 활동을 진행하며, 아동 놀이문화 구축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놀이규칙을 직접 만들며 자존감이 높아진 아이들

의욕적으로 ‘놀이숍’ 프로그램을 기획했지만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놀이는커녕 같은 공간에서 만날 수조차 없게 됐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놀이였다.

처음에는 어려워하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차차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놀이규칙을 만들면서 세상에 없는, 자신들이 직접 만든



아이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연극 만들기 활동.

놀이를 갖고 있다는 자부심도 생겼다. 규칙을 만들어나가면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됐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나가는 창의력과 함께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추진력도 생겼다. 성취감과 함께 자존감도 높아졌다. ‘놀이’로써 기대했던 것 이상의 효과였다.

아이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MVP 기획단의 주인공은 아이들이 되어갔다. 지난 MVP 기획단의 활동을 총 정리하는 MVP 기획단 성과공유회도 아이들이 직접 기획했다. 아이들이 행사의 식순도 직접 짜고, 외부 손님도 직접 찾아가 초청했다. 담임 선생님부터 마을 공동체, 연수구청 구청장까지 직접 초대장을 전했다. 어른들이 기획하고 어른들이 진행하는 행사에 ‘손님’이 되어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사회까지 보는 보기 드문 일이었다.

“외국인 친구들의 경우 낯선 나라에 오다보니 위축되어 있고 자존감도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던 아이들이 MVP 기획단에 참여하면서 의견을 내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무언을 한다면 피하기만 하던 아이들이 이제 서로 하겠다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함박중합사회복지관의 이지연 팀장은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아이들의 변화에 무척 놀랐다’고 밝혔다.

놀며, 누리며, 나누며 확산되는 공동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난 4월부터 함박중합사회복지관은 활기를 띠고 있다. 1기 MVP 기획단으로 활동한 18명의 아이들에 새롭게 2기 MVP 기획단으로 고려인 및 외국인 13명, 한국인 6명 등 19명이 더해져 프로그램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


지난 봄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열띤 토론을 통해 장소와 시간, 먹을 거리 등 세부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해 야외 나들이도 다녀왔다.

“처음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저보다 아이들이 더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간식 시간에는 MVP 기획단에서 만든 규칙을 이용해 놀기도 하고요. 다 함께 만든 놀이라 싸우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규칙’과 ‘놀이’를 기반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박중합사회복지관의 서지혜 사회복지사는 ‘아이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기뻐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비대면 활동에서 반응이 좋았던 연극 배워보기 활동을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이들이 직접 연극을 만들어 곧 다가올 두 번째 성과공유회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처음에는 연극은 좋은데 무대에 올라가는 것은 부끄럽다던 아이들이 이제는 “성과공유회에 연극 올리는거 맞냐, 대본은 언제까지 외우면 되냐”고 물으며 기대를 드러낸다. 관객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부감이 점점 사라지고, 나를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과 표현력이 쑥쑥 자라나고 있었다.

함박중합사회복지관은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온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놀이 활동가를 양성하는데 더욱 힘을 실을 예정이다. ‘놀이숍’을 기획·진행할 수 있는 놀이 활동가를 양성해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필요로 하는 곳 어디든 활동가를 파견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제작할 계획이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고려인, 한국인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을까?”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전에 가졌던 생각들은 어른들의 걱정에 불과했다. 아이들은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달라도 그들만의 언어인 놀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복지관 앞 마당에서 함께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더 밝게 들려왔다.  글 정재학



성과공유회에서 사회자로 나서 행사를 진행하는 아이들의 모습.